

광양어린이보육재단, 발달지연 의심 영유아 정밀검사비 지원

만 6세 미만 취학 전 아동 대상 병원 검사비·진찰료 1인당 20만 원 이내 발달지연 징후 아동 조기 발견해 개인 수준 맞는 체계적 치료·교육 제공

(재)광양시어린이보육재단이 발달지연 영유아의 정확한 진단과 전문적 치료를 위해 전문병원의 정밀검사비를 지원한다. 정밀검사비 지원사업은 영·유아기 발달지연이 의심되는 경우가 많으나 정확한 진단이 어렵고 진단에 대한 부모의 신뢰성 부족으로 조기발견이 어려운 실정을 해결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광양시에 거주하는 만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으로, 발달지연 정밀검사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병원 검사 및 진찰료를 1인당 20만 원 이내로 지원한다. 재단은 신청 접수 후 보호자와의 상담을 통해 해당 아동의 증상을 청취하고 대상자 여부를 판단한 후 검진대상자 확인서를 교부한다. 확인서를 교부받은 대상자는 전

문병원을 방문해 검진을 받은 후 진료영수증과 확인서를 첨부해 재단에 검사비를 청구하면 된다. 검진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부모 혹은 그 밖의 관계인은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구비해 (재)광양시어린이보육재단을 방문하거나 팩스(☎061-797-2592), 이메일(tjfdnjf2@korea.kr),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재단은 해당 사업 추진으로 발

달지연 징후 아동을 조기 발견해 정밀검사를 통해 개인 수준에 맞는 체계적인 치료와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사회생활 적응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강용재 보육재단 상임이사는 “이번 사업을 통해 발달지연 영유아를 조기 발견해 맞춤형 치료와 적절한 교육으로 장애로의 발전 가능성을 최소화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재)광양시어린이보육재단은 올해 사업으로 ▶ 창의력 속속, AI 로봇 보조교사 지원사업 ▶ 맘스데이선 설치 지원사업 ▶ 보



육시설 영유아 발달 순회 지원사업 ▶ 어린이 체험 프로그램비 지원사업 등 16개 사업을 추진한다. 동부취재본부김승호기자

담양군, 올해 모바일헬스케어사업 대상자 모집



담양군은 올해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에 참여할 대상자 120명을 3월 12일까지 선착순 모집한다. 모바일 헬스케어사업은 건강위

업이다. 참여 대상은 건강검진 결과, 혈압·공복혈당·허리둘레·중성지방·HDL-콜레스테롤 중 건강위

최종 대상자는 24주 동안 사업 중 3번(최초/중간/최종) 보건소를 방문해 건강검진을 받게 되며, 의사, 간호사, 영양사, 운동지도사, 코디네이터로 구성된 사업전담팀과 함께 개인별 건강관리 목표를 설정하고 월 1회 집중관리와 건강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참여자에게는 모바일 앱 연동 스마트기기(활동량계)를 무상으로 지급하고, 월별 진행되는 건강미션에 참여하거나 앱을 통한 다양한 활동으로 포인트를 적립해 상위 순위에 오르면 인센티브도 제공하는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참여 희망자는 담양군보건소 건강정책계(061-380-2538/2539)로 전화 신청하면 된다. 김순복 보건소장은 “코로나19 시대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면서 맞춤형 건강관리를 제공하는 모바일헬스케어 사업을 통해 주민들의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담양=박종영기자

다음달 12일까지 사전검사·상담 통해 선착순 120명 선정 24주 동안 3번 보건소 방문해 건강검진...월 1회 집중관리

험요인이 있는 만 19세 이상 군민을 대상으로 건강 코디네이터가 모바일 앱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맞춤형 건강 상담을 제공하는 사

험요인을 1개 이상 보유한 군민으로 관련 질환자나 약물 복용자는 제외된다. 사전검사와 상담을 통해 선정된

광주 남구, '1년에 2번' 장애인 권리구제 나선다

광주 남구는 보호가 필요한 관내 장애인의 편의 증진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올 한해 상반기와 하반기 2차례에 걸쳐 장애인 권리구제 대상자 찾기에 나선다. 장애인복지법과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에게 제공하는 14가지 복지서비스 사업에 대한 수혜 대상자 누락 방지를 위해 나선다. 16일 남구에 따르면 올해 장애인 권리구제 발굴 대상자는 작년 말 기준으로 지적 장애인 4,522명과 청각 장애인 1,741명, 시각 장애인 1,234명, 뇌병변 장애인 1,033명, 정신 장애인 634명 등 관내 등록장애인 1만1,231명이다. 남구는 14종의 장애인 복지서비스 사업을 모니터링하는 행복e 시스템을 활용해 각 사업별 권리구제 대상자를 추출한 뒤 동 행정복지센터에 서비스 누락 대상자 명단을 통지해 수혜 대상자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서비스 신청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장애인 권리구제 대상자 발굴 작업은 상반기의 경우 지난 10일부터 오는 24일까지 2주간 진행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는 오는 7월 19일부터 8월 5일까지 진행할 방침이다. 상반기 조사를 통해 권리구제 대상자로 발굴한 장애인은 오는 25일부터 주소지 관할 동 행정부

관청 대상자 처리, 인공 달팽이관 수술 지원,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카드 유효기간 만료 대상자 처리, 언어발달 지원, 연금·수당·생활지원금 지원 등 14가지 종류이다. 남구 관계자는 “장애 유형과 정도 등에 따라 개개인에게 맞는 서비스를 발굴·제공함으로써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적극행정을 통해 장애인의 편의가 증진될 수

관내 등록 장애인 1만1231명 대상 24일까지 발굴 저소득 장애인 진단비 및 검사비 지원 등 14가지 종류 하반기는 7월19일~8월5일 예정...지나해 1578명 성과

지센터를 통해 서비스 이용 신청서를 제출한 뒤 누락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서비스 신청은 본인이 직접 방문해 신청하거나,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이 대행 신청할 수도 있다. 장애인에게 제공하는 복지서비스 종류는 저소득 장애인 진단비 및 검사비 지원을 비롯해 장애 제

있도록 권리구제 대상자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남구는 지난해 처음으로 장애인 복지 서비스 권리구제 대상자 발굴에 나서 각종 서비스와 지원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추고서도 해당 서비스의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한 등록 장애인 1,578명을 발굴한 바 있다. 기동취재본부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하나의 마음으로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코로나19, 우리가 함께할 때 이겨낼 수 있습니다!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



외출을 자제하고
최대한 집안에 머물러 주세요!



마스크 쓰기, 손씻기 등
개인위생수칙은 준수해 주세요!



약수 등 신체 접촉을 피하고
2m 건강거리를 두어 주세요!

